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7
백은 스님(前 범어사 강주) / 법화경(11월 4일)



“법화경은 부처님의 일대사인연이 무엇인지 빈틈없이 담고 있는 경전”이라며 늘 수지 불독할 것을 강조하는 백은 스님.

다섯 살에 출가한 나는 노스님의 무릎 위에서 역대 고승들의 이야기를 귀가 달도록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당시 ‘팔만장경만 다 섭렵하면 도인은 자연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지요. 크면서 조사어록도 배웠습니다. 그때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서장>에서 화두를 타파해 깨쳐야 도인이 된다는 말이 었지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팔만장경이 부처님 말씀으로,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견성하기 어렵고 참선해서 화두를 타파해야 견성할 수 있다’고 하니, 문제가 또

하나가 생기게 된 겁니다. ‘팔만장경보다도 조사어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늘 머릿속에는 ‘조사어록이 경전보다 공부에 요긴한가, 더 넓은 말인가’ 하는 궁금증 속에서 참선과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법화경>은 예전 수덕사 선방 시절부터 읽었습니다. 당시 방선만 하면 <법화경>을 꺼내 읽었는데, 선방 대중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서 혼자 읽었지요. 그때 <법화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것들이

바로 마음 밝히면 이것이 ‘일승’

많았습니다. 특히 <법화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일승이다’고 하는 것보다 ‘전생에 이렇게 닦아서 지금에 와서 성불했다’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법화경>을 똑바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틈틈이 읽으며 그 대의를 알게 됐습니다. <법화경>이 좋은 까닭은 ‘부처님께서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법문때문입니다. 그럼, 일대사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중생에게 불지견(佛知見)을 열어(開) 보이고(示), 깨달아(悟) 거기에 들게 하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지견은 무엇일

相沈是我禪 : 한 뜻까지도 다 풀어 없애는 것이 나의 선이다’이라 했습니다. ‘무진성해’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요긴한 것은 ‘일미’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맛’이란 말은 결국, 일승을 의미합니다. 모두 일승에서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승이란 말까지도 치워 없애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과 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일승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소승(小乘), 중승(中乘), 대승(大乘) 일승(一乘) 등으로 말합니다. 가령 화엄 학자들은 <화엄경>을 일승이라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일승원교(一乘圓敎)라 하지요. 법화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을 대승종교(大乘終敎)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승의 관문에 들어가는 것을 법화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태지자 스님은 반대입니다. <화엄경>을 설할 때는 아직 부처님의 제자들이 없어, 깨진 경지를 시방세계 대중들에게 설했기에 대승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 40년째를 맞아 <법화경>을 설했습니다. 천태지자 스님은 <법화경>이야말로 일승사상이라고 했던 겁니다. 교학자 대부분은 <화엄경>을 일승(一乘)이라 하고, <법화경>을 대승종교라 하지만, 천태 지자 스님은 <법화경>이 일승이고, <화엄경>은 대승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을까요? 사람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천태지자 선사 천태종계통에서는 <법화경>을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런데 원효 대사는 “부처님은 항상 일승만을 설했다. 그러나 사부대중이 일승을 못 알아들으니, 사부대중의 근기에 맞게 소승, 중승, 대승 등으로 일승을 설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소승부 경전이 보는 아함부 경전도 일승만을 설했고, 방등부 경전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효 대사의 말에 따르면,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 전체가 오직 일승만을 설한 셈입니다. 일승을 사부대중이 못 알아들으니까, 근기에 따라 이것저것 설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함부 경전이라고 법문이 낫고,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라고 법문이 더 수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일승을 설했기 때문입니다.

원효 대사의 이 같은 교상판석은 중국, 일본에도 없는 독특한 사상입니다. ‘부처님은 오직 일승만 설했고, 대중들의 근기에 맞게 소승 중승 대승 등 여러 가지로 설했을 뿐’이란 원효 대사의 사상은 선과 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해줍니다. 전부 일승이란 시각에서는 ‘선이다, 교이다’라고 불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더더기가 되는 셈입니다.

<법화경>에는 ‘대통지승불(大通智勝佛)’이란 부처님이 나옵니다. 대통지승불은 10겁, 즉 54억만년 동안 도량에 앉아 좌선을 했지만,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이루지 못한 부처님입니다. 이를 교학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안목을 높여서 보면,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10겁이든 100겁이든 한 찰나동안 앉아있든지, ‘불법이 나타나다, 안 나타나다’고 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이미 부처님 세계에 있는데, 불법의 현전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문자에만 집착해서 보면, <법화경>은 아함부 경전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언어·문자에서 벗어나서 보면, <법화경>은 ‘일승원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승만을 설했다’는 원효 대사의 말처럼, 부처님은 <법화경>이든 <아함경>이든 일승만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보면, <법화경>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경전입니다. 물론 다른 경전이 못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법화경>에서는 하나하나가 요긴한 말씀입니다. 나는 늘 ‘과연 일승이란 무엇일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물론 교학적으로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석보다도 조용히 아침·저녁으로 참선하면서,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두는 어디로 가버리고, ‘일승이란 무엇인가’란 이 말만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것에 가장 가까운 화두가 ‘만법귀일 귀일하처(萬法歸一 歸何處)인가?’입니다. 만법이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고, 귀일하나로 돌아간다는 일불승, 일승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 하나는 <법화경>의 일승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로 문자로 이해하면, 이미 일승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근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상불경 보살처럼 상대방 공경하는 삶 성불의 인연 심는 것”

삶을 정도로 의심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 10겁은, <화엄경>에서는 10바라밀이라 하고, 다른 교학자들은 10악이라고 합니다. 먼저 10악이라고 보는 것은, 10겁을 도량에 앉아서도 10악이 유행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불도를 이루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선(禪)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지승불’이 부처님이라면, 부처의 눈에는 우주법계 모두가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엄경>에서 ‘한 부처님이 세상에 나면, 이 우주법계가 전부 부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두두 물음이 모두 불법이듯이, 대통지승불이 부처인데 10겁이든 100겁이든 부처 앞에 무슨 불법이 현전하겠습니까. 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교학적으로 문자에만 얽매어서 해석하

“가르침 전체가 ‘일승’ 높고 낮음과 선과 교 따로 구별할 수 없어”

“가르침 전체가 ‘일승’ 높고 낮음과 선과 교 따로 구별할 수 없어”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서버스톱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시암 출발 (왕복 1만원)

海印寺 高麗刻板 「사간판 인경본」 보급 불사 안내

고려시대 불교신앙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료가치의 최고를 드립니다

해인사는 고려각판을 보존하기위해 해인사 사간판 인경불사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인경을 마친 인경본을 사찰은 물론 불자들에게 한정 보급합니다. 고려팔만대장경이 제작되기 전인 900년대에 제작된 것부터 1960년대에 제작된 것까지 모두 158종 5986권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28종이 국보 206호로, 26종이 보물 734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고려시대 불교신앙의 경향과 서지학적 변화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海印寺刊板이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두 동의 큰 판자인 범보전과 수다라장 사이에 있는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경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목판을 흔히 ‘해인사간판(海印寺刊板)’이라 불려왔습니다. 이 목판은 국가기관인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새긴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제32호)과는 달리, 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각 「사간판 인경본」 10질 한정 보급!!



80회암경변상도(주본)				시왕성철경				대문금강경				인친보감			
경이름	총권	판매가	비고	경이름	총권	판매가	비고	경이름	총권	판매가	비고	경이름	총권	판매가	비고
묘법연화경	7권	100만원		능가경회역	4권	50만원		대문금강경	1권	100만원	국보 206-20	80회암경변상도(주본)	1권	200만원	국보 206-14
인친보감	상·하 2권	200만원	국보 206-9	심부주	4권	50만원		시왕성철경	2권	200만원	1권 국보 206-10	80회암경변상도(진본)	1권	100만원	국보 206-13
경덕전등록	10권	200만원		대승능가경	1권	50만원									

입금계좌 : 농협 843174-51-013471 (예금주 : 해인사)

구입문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보존연구원) 전화 055)934-3095 / 팩스 055)934-3096

